



機械工學을 中心으로 한

工學教育의 方向은

아카데미 엘리트냐? 엔지니어냐?

大韓機械學會서 세미나

『機械工學을 中心으로 하는 工學教育에 關한 세미나』가 1972年 9月 30日, 延世大學校 「켄 퍼스」內의 張起元記念館에서 午前 10時30分부터 長時 7時間동안 大盛況裡에 進行되었다.

工學教育에 關한 「세미나」이므로 參席者는 大部分 「켄 퍼스」의 教授들이었으나 KIST를 비롯한 研究機關과 科技處 및 產業界에서도 積極的인 參與가 있었다.

세미나는 便宜上 四部로 大分되었지만 第四部의 綜合討論을 除外하고는 各 部마다 主題討論을 가졌었다. 綜合討論은 서울 大學校의 이택식 教授를 座長으로 모시고 展開되었는데 制限된 時間에 熱意는 넘쳐 各自가 품은 意見이나 「아이디어」가 充分히 交換되지 못한 感이 있던 것이 아쉬웠다.

이 「세미나」에서 다룬 主題는 크게 分類해서 1, カリ큘럼 問題, 2 工學教育의 方向設定 問題, 3, 學生의 適應能力 開發問題 등으로 要約되었다.

여기서 自稱 『工學教育界의 막내동아(?)』를 自負한 蔚山工大 學長 李寬博士가 工學教育方向의 새로운 設定으로서 英國式 Sandwich System을 提唱한 것은 하나의 收穫으로서 注目을 끌었다.

祖國의 近代化 作業에서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技術革新에서 『產學協同』을 主張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서 唯獨 이 蔚山工大에서만 產業界의 實務 「엔지니어」와 最高經營者들을 招請하여 『產業教授』라는 이름 아래 直接 「엘리트」 後輩養成에 힘쓰고 있음은 마음 든든할 뿐 아니라 앞 날의 새 座標를 본 듯 欣快하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焦點은 역시 教育方向의 設定을 어디다 두느냐, 即 「아카데미」한 「엘리트」의 養成인가 實務 「엔지니어」의

養成인가 하는데 쏠렸다. 「안테나」塔 하나 제대로 設計 못 한다고 恨嘆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 大學이 卒業하기 쉬운데다 學點을 「F」로 주면 登錄이 떨어져 影響이 많으니 학생의 눈치를 살피느라 教育도 안 될 뿐더러 學生은 「고고클럽」에나 다닐 만큼 工夫 안 한다고 甚한 自暴自棄的 告白을 하는 이도 있어 자못 열띤 討論이 展開되었다.

여기서 特記할 點은 大韓重機의 金連珪 社長이 工學教育에 關한 產業經營者로서의 見解를 밝힌 것이었는데 金社長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每年 入社試驗을 통해서 얻는 結論이지만 工科卒業生들도 千差萬別이라 個人差가 많아요. 그래도 基礎實力이 있는 學生이면 實務는 現業에 從事하면서 새로 배우는 것인 만큼 充分히 任務를 勤當할 수가 있습니다. 問題는 工學徒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收入이 얼마나 하는데 關心을 두게 하여 收入 좋은 「오파」貿易 같은 外道에 빠지든가 「컴퓨터 오퍼레이터」 같이 단추나 누르는 「엔지니어」 아닌 길로 빠지게 하지 말고 醫學界에서 「인턴·시스템」을 두 듯 몇年間 實務經驗을 쌓게 하는 동안에 「엔지니어」로서의 한 使命感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가장 緊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社長의 말을 뒷받침 해 주 듯 延世大의 崔仁圭 博士는 工學教育에 產業界의 協調가 絕對 必要하지만 그 必要는 「엔지니어」보다 經營者가 더 잘 안다고 喝破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產業界의 絕對的인 參與를 提唱하는 Sandwich System을 우선 紹介하고 다음에는 產業界의 소리로서 「G.M.코리아」의 李愚哲氏의 講論, 끝으로 政府側 代表인 科技處의 李德善 綜合計劃官의 發言을 차례로 記錄함으로써 이날의 세미나 Highlight로 삼고자 한다.